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박수진	직급	선임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수탁) 「(2025) 선체부착생물 처리(제거·수거·처리)기술 개발(5차년도)」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출장기간	2025.8.2.(토) ~ 2025.8.16.(토) (12박 15일)			출장지	스위스 (제네바)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부산(16:30) → 인천(17:40)	항공 이동			KE1410
	8.2.(토) ~8.3(일)	인천(22:25)→ 암스테르담(05:20) +1 암스테르담(06:55)→ 제네바(08:20) *스위스 현지시간	항공 이동			KL0856 KL1929
	8.3.(일) 오후	제5.2차 INC 회의 정부대표단 사전대책 회의	정부대표단 대책회의, 유엔 플라스틱협약 의장 수정초안 및 지역그룹 회의 준비, 발언문 준비			제네바 유엔사무소
	8.4.(월) 오전~8.15.(토) 오전	제5.2차 INC 회의	제5.2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INC 회의			제네바 유엔사무소
	8.15.(금)	제네바(17:15) →암스테르담(18:55)	항공 이동			KL1936
	8.15.(금) ~8.16.(토)	암스테르담(21:30) →인천(16:40) 인천(18:25)→부산(19:35)				KL0201 KE1407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제5.2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5.2) 정부대표단 참석 및 관련 의제 대응 ○ 주요 성과 - 제5.2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5.2)의 해양플라스틱 관련 의제 대응, 아시아-퍼시픽 지역그룹 회의(매일 오전9시~10시) 참석, 정부대표단 회의 참석 - 2주간 문안협상 진행 과정 중 컨택그룹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의제별 문안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정립과 발언문 작성을 위한 대표단 회의 참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 활동 지속					

	- 유엔 플라스틱협약 관련 문안(협약 초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대한 컨택그룹 및 비공식 그룹 회의(informal meeting) 참석 및 대응방향 자문, 국영문 발언문 작성 지원 - 스웨덴 대표단과 양자회의를 통해 유엔 플라스틱협약 세부문안에 대한 입장 확인 및 정보 수집, 어구 관리 등 해양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 상호 공유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의 라운드 테이블(8/13)에서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기술개발, 개도국 지원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언하였으며, KMI는 라운드테이블 발언문의 작성을 지원함 - 새로운 글로벌 해양규범으로 문안협상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최신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어구 관리, 기존 해양플라스틱 오염의 대응, 기술개발 및 ODA 사업 방향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제5.2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5.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관련 기관 공유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5.2) 결과 KMI 내부 공유('10월 예정) 및 학술대회 주제발표 (2025년 국제법학자대회, 10/24,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5.2) 주요결과 및 후속 협상 대응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예정 ('25년 10월 추진)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8.3(일)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 사전대책회의
수행계획	□ (8.3(일) 오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정부대표단 현지대책 회의 참석 - 일 시 : 8.3(일) 15:00 ~ 18: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조계연 심의관, 녹색환경외교과 백선우 서기관, 최다빈 사무관 - 회의내용 : 유엔해양플라스틱 협약 의장 수정초안 문서 세부 사항 협의 관련 우리나라 전략, 주요 분과별 회의일정, 분과별 의제 분석 * 8/3일 오전은 암스테르담-제네바 이동
수행결과	(8.3(일) 오후) 15:00~18:00 □ 유엔패스 발급 - 제5.2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참석을 위한 유엔패스 발급 □ 정부대표단 현지대책 회의 - 제5.2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의 기본훈령 및 정부 대응방향 - 제5.2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컨택그룹별 의제구분 및 업무분장 * 컨택그룹1(정의, 제품, 제품설계, 공급, 적용범위), 컨택그룹2(폐기물관리, 배출, 기존오염, 공정한 전환), 컨택그룹3(재원, 역량강화, 기술지원), 컨택그룹4(이행준수, 국별계획, 보고) * 컨택그룹 이외 비공식 그룹 회의(informal meeting)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 - KMI는 컨택그룹 2를 중심으로 의제대응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대표단 업무분장 수정·보완
업무②	8.4(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 Regional Consultations 참석
수행계획	□ (8.4(월) 오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Regional Consultations (아시아퍼시픽 지역그룹) 참석, 개회식 - 일 시 : 8.4.(월) 9:00 ~ 13: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조계연 심의관, 녹색환경외교과 백선우 서기관, 최다빈 사무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재경 주무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김영숙 사무관, 국립환경과학원 황동건 연구관,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박사 등) - 회의내용 : 유엔 플라스틱협약 의장 수정초안 문서(Revised draft text of the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세부 사항 지역그룹 회의, 양자협의 등 □ (8.4(월) 오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컨택그룹 참석 - 일 시 : 8.4.(월) 15:00 ~ 18: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조계연 심의관, 녹색환경외교과 백선우 서기관, 최다빈 사무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재경 주무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김영숙 사무관, 해양수산부 이지연 사무관, 국립환경과학원 황동건 연구관,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박사, 해양환경공단 이주원 대리 등) - 회의내용 : 컨택그룹 회의 참석 및 회의결과 정리
수행결과	(8.4(월) 오전) 10:00~13:00 □ 개회식 - 루이스 바야스 INC 의장은 대표단에게 실효성 있고 포용적이며 이행 가능하고 진화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실용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 - 유엔환경계획(UNEP)의 잉거 앤더슨 사무총장은 대표단에게 협상 마무리를 강조하면서 합의 도출을 촉구 - 국제화학협회회의(ICC)는 플라스틱의 순환성을 촉진하고 혁신 및 제품 설계에 투자하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의사규칙(UNEP/PP/INC.4/2)의 잠정적 적용에 합의, 시나리오 노트(UNEP/PP/INC.5/INF/13) 및 제안된 일정으로 4개 컨택그룹을 운영하는데 합의 -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그룹을 대표하여, 제6조(공급/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한 컨택그룹 이 외 비공식 그룹 논의를 요청 -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컨택그룹은 1과 컨택그룹2, 컨택그룹2와 컨택그룹3이 각각 동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일정조정함 (8.4(월) 오후) 15:00~20:00 □ 정부대표단 현지대책 회의 - 컨택그룹 4개와 비공식 그룹 회의가 병렬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대표단은 업무분장에 따라 각각 의제대응, 단독방을 통해서 의견조정 및 정보공유 예정 - 컨택그룹1은 환경부와 산업부가 담당하고, 컨택그룹 2는 환경부와 해수부(해양보전과, KMI, KOEM)가 담당함 - 외교부는 컨택그룹 3과 4를 담당하되, 환경부와 전문가 자문이 지원 - 비공식 그룹 회의(informal)은 개별 의제별로 진행되므로, 추후 일정 조율하여 대응 □ 아시아퍼시픽 지역그룹 회의(APG regional meeting) - 이란은 모두가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러시아는 협약 초안 제3조 적용범위, 제6조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함. 또한 Annex 상 규제대상 리스트(우려되는 화학물질/첨가제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반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특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국가,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제6조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규정이 협약에 포함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서문(preamble)이나 역량강화 조항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 - 필리핀은 플라스틱 화학물질의 유해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협력, 파트너십, 정보공유를 강조하였고, 국제협력은 남북협력뿐만 아니라 남남협력을 촉구 - 싱가포르, 중국이 플라스틱 협약의 타결방식, 구조적·계층적 체계(hierarchy), 분류기준, 국제 기술지침의 개발 등에 대해 발표하였고, APG 국가들 상호간의 토론이 이루어졌음 -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 아시아퍼시픽 지역그룹에 정보공유를 요청하였으며, 2주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업무③	8.5(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 회의 참석
수행계획	□ (8.5(화) 오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5(화) 9:00 ~ 13: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개회식, 회의 절차규칙, 의제 채택 및 협상 일정 결정 □ (8.5(화) 오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5(화) 15:00 ~ 18: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유엔 플라스틱협약 의장 수정초안 문서 세부 사항 협상: 목적, 용어정의 등
수행결과	(8.5(화) 오전) 10:00~13:00 □ 컨택그룹 2 - 컨택그룹 2에서는 플라스틱 수명 주기; 양식 활동으로 인한 플라스틱 오염; 소규모 및 전통 어업 및 양식업 종사 어민과 어업 종사자의 생계; 그리고 원주민의 지식과 문화적 관행. 여러 대표단은 플라스틱 수명 주기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언급에 반대함 - 한편, 플라스틱 자체의 방출과 누출과 플라스틱 제품으로부터의 방출 및 누출을 구분하여 접근할 것과 제3조(적용점위)와 중복되므로, 제7조의 삭제를 주장하는 국가의 의견이 대립 □ 컨택그룹3 - 제11조 재원 및 재정 메커니즘에 대해 개도국은 의장 문안이 제안서에 포함된 견해를 충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여러 개발도상국 그룹이 지지하는 아프리카 그룹의 사전 제출 제안서를 협상 기반으로 삼을 것을 촉구함 - 선진국은 기존 지구환경기금(GEF) 등 기존 재정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전용기금의 신설을 주장함 - 미국의 경우는 민간부문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재정메커니즘에 포함할 필요성을 강조함 (8.5(화) 오후) 15:00~22:00 □ 컨택그룹 회의 - 컨택그룹 2에서는 제7조(방출 및 누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제7조 존치 여부 및 세부내용에 대한 첨예한 입장 대립하였음 - 영국과 파나나가 공동으로 제7조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8/일 컨택그룹 2는 수정안에 대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EU,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도미니카 공화국, 페루, 팔라우(SIDS 대표),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는 지지를 표명하였음. - 다만, 제7조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의견을 제시하였음. 즉, ▲제7조 존치 여부, ▲제7조‘플라스틱 생애주기’ 포함 여부, ▲미세플라스틱 명시 여부, ▲조문 구조(Chapeau 병합 vs 분리), 비공식 협의(informal consultation) 전환 여부 등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대립함 * 영국-파나마 수정제안 내용은 ▲Chapeau에 “플라스틱 생애주기 전체(lifecycle across plastics)” 문구 삽입하고, ▲제7조 제1항과 제1 a항을 병합해 누출 및 유출 방지를 더 명확히 표현하였으며, ▲제1 b항에 양식업(aquaculture)을 추가하고, ▲제1 c항의 조문에서 기타 다자협약 관련 문구 삭제 및 소규모 어업 종사자 생계를 고려하는 자구를 추가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튀르키예 등 아랍 그룹은 제3조 및 제8조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면서 제7조 전체 삭제를 요청하였음(“no text” 옵션) - 튀르키예는 ‘transboundary’ 문구는 UNEA Res. 5/14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반대를 표명하였고, mismanaged plastic waste 삭제를 요청 - ▲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life cycle)’는 이미 제3조와 제8조에서 다뤄지고 있으므로 중복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개발도상국과 전환경제국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 고용, 무역 등을 고려하는 사회경제영향 분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장함 -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는 영국-파나마 제안을 지지하였으며, EU는 전 생애주기 관점은 UNEA Res. 5/14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7조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미국은 산업계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표준 및 관리책임(stewardship)’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한편,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별도로 제7조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 표명 - 중국,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마찬가지로 ‘전 생애주기’ 자구의 삭제를 주장
업무④	8.6(수)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 회의 참석
수행계획	□ (8.6(수) 오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6(수) 9:00 ~ 13: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유엔 플라스틱협약 초안 문서 세부 사항 협상 : 국가계획, 미세플라스틱 □ (8.6(수) 오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6(수) 15:00 ~ 18: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유엔 플라스틱협약 초안 문서 세부 사항 협상 : 생애주기 플라스틱 배출, 폐기물 관리,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등
수행결과	(8.6(수) 오전) 10:00-13:00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컨택그룹 2 - 컨택그룹 2에서는 제7조(배출 및 방출)와 제9조(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당사국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환경상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shall)"는 표현과 "해야 한다(should)"는 표현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함 - 다수 대표단은 폐기물 처리 계층 구조(waste hierarchy) 언급을 요구했고, 인간건강(health)를 강조하는 국가와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및 관련 조치는 국가별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 어구(fishing gear)에 대해서는 제7조에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에 대다수의 국가는 동의하였으나, 양식설비, 수중활동으로 인한 플라스틱 배출 및 방출로 확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뉨 □ 컨택그룹3 - 제11조(자원 및 재정메커니즘)에 대해 다수 대표단은 INC-5.1에서 아프리카 그룹이 제출한 문서를 협상 기반으로 사용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음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보조금 기반 및 양허성 금융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COP 2까지 운영될 새로운 전용 기금을 설립하며, 글로벌 환경 기금(GEF)을 임시 재정 기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주장이 있었으며, 산유국을 중심으로 1차 플라스틱 폴리미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삭제를 주장함 (8.6(수) 오후) 15:00-22:00 □ 컨택그룹 2 - 생산자책임제(EPR)와 관련하여, EU는 EPR의 책임강화와 실질적 실행을 강조하였으나, 멕시코는 개도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한 접근을 요구함 -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EPR에 대해 아랍연합의 다수 회원이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산업계는 생산자책임을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임 - 폐기물관리에 대해 에너지 회수까지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국가간 이견이 있었으며, 하나의 건강(One Health), 정의로운 전환의 범위에 대해 국가별 첨예한 대립이 있었음 □ 조직 및 절차 - 컨택그룹 1과 컨택그룹2에 대해서는 문안에 대한 논의방식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비공식그룹 회의는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된 문안 도출을 위해서는 효율적이지만 일정 중복 및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업무⑤	8.7(목)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 회의 참석
수행계획	□ (8.7(목) 오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7(목) 9:00 ~ 13: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유엔 플라스틱협약 초안 문서 세부 사항 협상 : 어구(fishing gear), 해양환경에서의 오염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 (8.7(목) 오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7(목) 13:00 ~ 18: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유엔 플라스틱협약 초안 문서 세부 사항 협상 : 공정한 전환, 자원메커니즘, 재정기여 수단 등
수행결과	(8.7(목) 오전) 10:00-13:00 □ 컨택그룹2 - 제7조 플라스틱 폐기물관리에 대해 중복표현과 개념적 반복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문안 수정논의가 진행되었음. 대두사 국가는 조정관(facilitator)(칠레와 스위스)이 제안한 간소화된 문안과 비공식 그룹 회의 진행에 동의하였음 - 제9조 기존 플라스틱 오염(Existing/Legacy Plastic Pollution)에 대해서는 ①"Existing Plastic Pollution"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국가(우리나라, 미국, 콜롬비아, 캐나다, 영국, EU, 노르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이, 일본, 투발루, 호주, 스위스, 팔라우 등), ② “Legacy Plastic Pollution” 선호하는 국가(이란, 쿠웨이트, 아랍권 일부) 등으로 의견이 대립하였음. 이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CBDR) 또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연계되어 절충점을 찾지 못하였음 - 특히, 캐나다와 영국은 “Legacy Plastic Pollution”이라는 용어는 절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 (8.7(목) 오후) 15:00-23:00 □ 컨택그룹2, 비공식 그룹 회의 - 제9조의 기존 플라스틱 오염의 의무수준, 협력범위, 식별·평가·모니터링 및 정화 및 제거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이란과 쿠웨이트는 CBDR원칙을 제9조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고, 콜롬비아,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서면에 포함할 사항이라고 주장함 - 한편, 이란, 페루, 카메룬은 기존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스리랑카는 초국경적 오염에 해양사고, 불법투기 등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캐나다와 45개국, 노르웨이, 브라질 등은 기존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하는데 토착민과 지역공동체 전통지식/관습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음 -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해서는 규제의 강제성,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적 접근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미국은 공정한 전환의 성격이나 내용이 모호하다면서 삭제를 주장함
업무⑥	8.8(금)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 회의 참석
수행계획	□ (8.8(금) 오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8(금) 9:00 ~ 13: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유엔 플라스틱협약 초안 문서 세부 사항 협상 : 역량강화, 기술이전 □ (8.8(금) 오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책지원, 정부대표단 대책회의 - 일 시 : 8.8(금) 15:00 ~ 18: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정부대표단 대책회의, 유엔 플라스틱협약 초안 문서 세부 사항 협상 : 이행준수, 진행상황 보고
수행결과	(8.8(금) 오전) □ 컨택그룹4 - 컨택그룹4에서는 국가계획(제14조), 보고(제15조), 효과성평가(제16조), 정보교환(제17조)를 중심으로 문안협상이 진행되었음 - 일본, 영국, 스위스는 국가계획(national plan)과 보고, 정보교환 등의 의무이행과 자원제공 여부를 연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하였으며, 자원 및 재정메커니즘 논의와는 별개로 문안협상을 진행하여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반면, 다수의 개도국은 국가계획 및 보고절차는 자원과 기술지원 확보전까지는 자발적인 형태여야 하며,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국가별 상이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차별적 보고절차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아랍국가 그룹은 국가계획에 대해 주권 및 역량에 따라 자발적이어야 하며, 재정지원 여부와 연계한 내용이 협약문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8.8(금) 오후) □ 컨택그룹4 - 보고절차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 디지털화, 공개접근 보고체계를 제안하였음 -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국가안보 관련 기밀은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며, 보고절차가 다른 국가의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함 - 효과성평가(effectiveness evaluation)에 대해 첫 평가시기에 대해 국가별 입장이 나뉘었는데, EU, 사우디아라비아, 팔라우(SIDS) 등은 발효후 6년 이내, 아프리카 그룹은 4년 이내, 러시아는 3년 이내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효과성평가를 위한 평가범위, 정보출처, 모니터링,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특히, EU, 팔라우(SIDS)는 효과성평가는 국가계획 및 COP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 향후 플라스틱 제조공정 및 재활용 등 기술교환, IMO MARPOL, 미나마타협약(수은규제협약) 등 다른 국제협약과의 정합성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업무⑦	8.9(토)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 회의 참석
수행계획	□ (8.9(토) 오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9(토) 9:00 ~ 13: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유엔 플라스틱협약 초안 문서 세부 사항 협상 : 분과별 회의결과 공유, 국가 이행 계획, 이행 및 준수, 이행 보고 등 □ (8.9(토) 오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9(토) 15:00 ~ 18: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유엔 플라스틱협약 초안 문서 세부 사항 협상 : 국제협력, 정보 공유, 인식제고 및 연구교육 등
수행결과	(8.9(토) 오전) □ 전체회의, 컨택그룹1 및 비공식그룹 회의 -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분과별 논의에 대한 중간점검이 이루어졌음. 컨택그룹1의 공동의장(앙헬리카 이케다(브라질)와 악셀 보르크만(독일))은 협약의 적용점위는 여전히 의견차이가 존재하며, 정의(제2조), 면제(제4조), 공급/지속가능한 생산(제6조)에 대해서는 논의를 작수하지 못했다고 중간상황을 보고함 - 컨택그룹2의 공동의장(피터 저스티스 데리(가나)와 투울리아 토이카(핀란드))은 제7조~제10조까지 1차적 논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비공식그룹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있다고 보고함 - 컨택그룹3의 공동의장(케이트 린치(호주)와 그웬 시시오르(팔라우))은 자원 및 재정메커니즘(제11조), 국제협력/역량강화/기술이전(제12조)에 대한 진전을 보고하였음. - 컨택그룹4의 공동의장(고바야시 고(일본)와 린로이 크리스천(앤티가 바부다))은 서문, 제14조~제18조까지 완전히 검토되지 않았으나, 기탁자(제31조), 정본(제32조)에 대해서는 법률초안그룹(legal drafting group)으로 이관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원칙[및 접근법](제2조), 당사국 총회(제20조) 및 보조 기구(제20조 2항), 보건(제19조)에 관한 논의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기존 조항들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들을 담은 새로운 조항[접근법](제2조), 당사국 총회(제20조) 및 보조기구(제20조의2), 보건(제19조)에 관한 논의를 위해 비공식그룹이 소집되었다고 보고함 - 호주 등 다수의 국가는 UNEA 결의 514를 기초로 삼아 플라스틱 오염 대응의 국제적 긴급성을 강조하였음. 한편, 호주는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패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서문(preamble)과 관련하여, 국가별 입장과 중요한 요소가 나뉘었는데, 협정의 범위와 독립성 보장을 주장하는 라틴아메리카 그룹(브라질)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칠레, 우간다 등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 다수 대표단은 협상 진전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쿠웨이트는 동맹국 그룹을 대표하여, 러시아 연방, 말레이시아, 이란, 모로코, 인도, 쿠바, 카자흐스탄 등 다수 국가와 함께, 범위 관련 조항이 논의 과정에서 공정하게 검토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8.9(토) 오후) □ 컨택그룹1 및 컨택그룹3 - 플라스틱 제품 설계(제5조)에 관해 네덜란드는 비공식 그룹이 오후에 국가 조치에 관한 제1항 검토를 재개했으나 절차적 문제로 논의가 교착 상태에 이르렀으며, 가교안 검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 - 컨택그룹3에서는 자원 및 재정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으며, 보상 기금, 부담 분담 협정, 폐기물 관리 및 순환 경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복구 기금, 그리고 재정 메커니즘 하 기관들에 대한 COP의 잔여 권한과 같은 개념들이 제시됨 - 컨택그룹 4에서는 서문(preamble)의 내용에 대한 국가별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공동의장은 대표단들에게 제14조부터 제18조에 대한 의견을 포털에 제출할 것을 촉구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비공식그룹회의와 건강(제19조)에 대한 비공식그룹회의가 저녁에 개최되었음 □ 제7조 비공식그룹 회의 - 파나마(SIDS)는 제14조 연구 및 모니터링 관련 규정에 “최고 가용한 기술 및 환경적 관행”이라는 문구의 삽입과 국가계획은 반드시 당사국총회(COP)에서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EU는 개별 당사국의 체계적인 이행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협력적 용어가 전체 협약문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함 - 중국, 일본, 이란, 인도, 남아공은 플라스틱 제7조(방출 및 누출)과 최종처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제8조(폐기물관리)와의 중복성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노르웨이는 각 당사국이 보고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고, 러시아는 제7조 내용을 비롯한 플라스틱(plastics) 등 용어에 대한 블랙릿(미합의) 표시를 요청함 - 비공식그룹 회의에서는 토착민의 권리와 지역공동체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제14조~제16조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컨택그룹2 - 제7조의 방출 및 누출과 관련하여, EU, 일본, 남아공, 중국·이란·인도·일본·모나코 등은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원(sources)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수준(levels)과 행방(fate)을 규명하고 모니터링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였음 - 한편, 아제르바이젠(아프리카 그룹)은 제7조와 관련한 기술 접근 방식을 “가용한 기술(available technology)”과 “기술 연구(researching technology)” 라는 표현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 -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는 제7조의 제8조 등 다른 조항과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투기와 같이 의도적 배출은 제8조(폐기물의 관리)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의도적 누출은 현 조항에서 분리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함
업무⑧	8.11(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 회의 참석
수행계획	□ (8.11(월) 오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11(월) 9:00 ~ 13: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분과별 회의결과 공유 및 미합의 쟁점사항 추가논의,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회의결과 공유, legal drafting group에서 협약초안 작업 진행 등 □ (8.11(월) 오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11(월) 15:00 ~ 18: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분과별 회의결과 공유 및 미합의 쟁점사항 추가논의,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회의결과 공유, legal drafting group에서 협약초안 작업 진행 등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결과	(8.11(월) 오전) 10:00-13:00 □ 컨택그룹2 - 제7조의 방출 및 누출과 관련하여, EU, 일본, 남아공, 중국·이란·인도·일본·모나코 등은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원(sources)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수준(levels)과 행방(fate)을 규명하고 모니터링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였음 - 한편, 아제르바이젠(아프리카 그룹)은 제7조와 관련한 기술 접근 방식을 “가용한 기술(available technology)”과 “기술 연구(researching technology)” 라는 표현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 -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는 제7조의 제8조 등 다른 조항과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투기와 같이 의도적 배출은 제8조(폐기물의 관리)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의도적 누출은 현 조항에서 분리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함 □ 컨택그룹2 - 제9조(폐기물의 관리)의 간소화작업에 대한 평가와 초국경오염 관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 - 캐나다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국가간 플라스틱 폐기물 이동은 바젤협약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중국은 초국경오염에 대해 데이터기반으로 검토하고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 호주는 바젤협약이 지나치게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확대적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바젤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 - EU는 바젤협약은 국가가긴 이동시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정문안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미국은 바젤협약과 플라스틱협약과의 정합성 관련한 캐나다 주장에 지지를 표명함 - 한편, 미국과 노르웨이는 기타 경제적 수단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노르웨이는 EPR과 제품순환성 개발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8.11(월) 오후) 15:00-21:00 □ 컨택그룹2 - 파나마, 캐나다, 인도네시아는 토착민 및 공동체(ILC: Indigenous Local Communities)의 지식과 관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다수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음 - 방출 및 누출에 대응하기 위한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다수 국가가 공감하였으며, 파나마는 제2차 COP까지는 지침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기한 설정을 주장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제7조와 제8조의 중복성을 우려하면서 waste/release에 대한 블랙릿 처리를 요구함 □ 컨택그룹2, 제7조에 대한 비공식 그룹회의 - 제7조(방출 및 누출)와 관련한 식별, 평가, 모니터링에 대한 활동과 국가관할권의 구분,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문안협상이 이루어짐 - 쿠바는 개도국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제7조의 방출 및 누출에 대한 식별·평가·모니터링은 모두 조항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 국가관할권 이내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국가별 입장이 대립하였음.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고, 태평양도서국(피지)는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음. 반면, 미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 의장문안을 유지할 것으로 주장하였음 - 기술이전과 관련하여서도 영국은 국가들에게 기술이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촉구하는 수준으로 하던되며 국가별로 상황에 맞게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업무⑨	8.12(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 회의 참석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계획	□ (8.12(화) 오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12(화) 9:00 ~ 13: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조계연 심의관, 녹색환경외교과 박꽃님 과장, 백선우 서기관, 최다빈 사무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정미 과장, 이재경 주무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김영숙 사무관, 국립환경과학원 황동건 연구관,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박사 등) - 회의내용 : 분과별 회의결과 공유 및 미합의 쟁점사항 추가논의, legal drafting group 진행 및 결과 공유 등 □ (8.12(화) 오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12(화) 15:00 ~ 18: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분과별 회의결과 공유 및 미합의 쟁점사항 추가논의, legal drafting group 등
수행결과	(8.12(화) 오전) 10:00-13:00 □ 컨택그룹1 - 제6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제품 설계] [문제성] 플라스틱 제품(제3조)에 대해, 비공식그룹회의의 facilitator(뉴질랜드)는 대표들이 전 세계적 조치 조율 보장 방안, 보조 기구 또는 기타 기구.전문가 그룹.플랫폼의 역할 등 개념적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함 - 플라스틱 제품설계(제5조),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비공식그룹회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과 합의 지점을 식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컨택그룹3 - 컨택그룹4에서는 제12조(국제협력, 역량강화, 기술지원 및 이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였으며, 제1차 당사국총회(COP)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간 입장이 대립함 - □ 컨택그룹4 - 컨택그룹4에서는 국가행동계획(제14조), 보고, 효과성평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러시아는 국가행동계획(NAP), 보고(reporting), 이행효과성 평가(effectiveness evaluation) 관련 조항들에 대한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2일 내에 조약이 타결될 수 없다고 판단함. 특히 국가행동계획은 원래 UNEA 결의에서부터 협상의 의무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브라질은 제13조(이행준수)~제16조(효과성평가, 모니터링)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표명하였으며, EU는 제18조(인식, 교육, 연구)와 제19조(건강에 대한 논의를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일본은 EU의 발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 중국은 의장이 제시한 일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제30조(탈퇴)에 대한 단독 논의세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제13조~제16조에 대한 국가별 입장은 8월 1주차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의사진행 방식, 비공식그룹 회의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8.12(화) 오후) 15:00-22:00 □ 컨택그룹2 및 제7조 비공식그룹 회의 - 중국은 관리된(managed) vs. 관리되지 않은(mismanaged) 플라스틱 폐기물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고, 어구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요청 - 제7조에 대한 비공식그룹 회의에서는 제7조 방출 및 누출과 관련한 국가적 조치, CBD원칙의 적용여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및 범주, 모범사례 등에 대한 국가별 입장이 표명 - 어구(fishing gear) 폐기물의 방출 및 배출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등 국가별 조치에 대해서는 다수 국가가 필요성 및 현행 조문에 대한 이견이 크게 없었음 - 다만, CBDR 원칙을 적용하자는 개도국과 미온적인 선진국 및 아랍국가(이란 등)의 입장이 대립하였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제7조와 제8조의 중복성과 관련하여, 노르웨이는 제8조는 국가차원의 폐기물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이며, 제7조는 방출 및 누출을 방지하고 모니터링, 저감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 - 중국은 플라스틱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flue gas, 폐수까지 관리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 - 노르웨이는 해양환경대신 환경으로 표현하여 해양과 기타 모든 환경에서의 배출과 방출을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 - 영국은 aquaculture gear는 FAO의 유령어구 관리지침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7조에 포함할 것을 주장함 - 우리나라는 기존 플라스틱 오염 vs legacy plastic pollution에 대한 국가별 입장이 나뉘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업무⑩	8.13(수)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 회의 참석
수행계획	□ (8.13(수) 오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13(수) 9:00 ~ 13: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분과별 회의 진행 및 쟁점사항에 대한 지역별/국별 협상, 제5.2차 INC 전체회의에서 분과회의 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legal drafting group 진행 및 결과 공유 등 □ (8.13(수) 오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책지원, 정부대표단 대책회의 - 일 시 : 8.13(수) 15:00 ~ 18: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정부대표단 대책회의, 분과별 회의결과 진행, 쟁점사항에 대한 지역별/국별 협상, 제5.2차 INC 전체회의에서 분과회의 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의장 권고문, legal drafting group 결과 공유, 향후 분과별 회의일정 등
수행결과	(8.13(수) 오전) □ 컨택그룹1~컨택그룹2 - 8/13일 오전에는 컨택그룹별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블래킷이 유지된 상태로 각국의 입장 표명이 이어졌음 - 컨택그룹1에서는 플라스틱제품(제3조), 플라스틱 제품 설계(제5조)를 중심으로 양자 및 비공식 그룹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함 - 컨택그룹2에서는 방출 및 누출(제7조)에 대해 전체 조항을 검토할 수 있었으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폐기물 관리(제8조)에서는 제2항을 간소화할 수 있었으며, 기존/유산 플라스틱 오염(제9조)와 정의로운 전환(제10조)에 관해서는 조항별 비공식 그룹회의가 있었으나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컨택그룹 3에서는 제1차 당사국총회의 역할, 국가별 분류에 따른 다자간 환경협정(MEAs)에서 합의된 용어 사용을 선호하였다는 점을 밝히면서 플라스틱협약 초안 전반의 관련 용어 사용에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컨택그룹4에서는 보고내용과 보고주기의 의견차이가 있으며, 제14조~제16조까지 조항(국가계획과 보고, 효과성 평가)을 패키지로 다루는데는 합의가 도출되었음 - 컨택그룹4에서는 제7조~제10조까지의 내용 중 2차 의장문안에 대해 국가별 입장이 반영된 문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지나치게 간소화된 2차 의장문안에 블래킷이 다수 추가된 형태의 문안이었음 (8.13(수) 오후) 15:00-23:00 □ 전체회의 - 오늘 본회의는 INC의장 바야스는 협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힘 - 컨택그룹별 보고와 법률초안그룹의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각국의 국별 발언이 있었음 - 법률초안그룹은 기탁자(제31조), 정본(제32조)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탈퇴(제30조) 관련 조항도 법률초안그룹에 이관하기로 합의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선진국과 개도국,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과 소비국을 불문하고 다수국이 2차 의장문안은 수용 불가하며 추가 협상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 - EU는 본 문서가 UNEA 결의안 5/14에 미치지 못하며 구속력 있는 구체적 약속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 미국은 본 문서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적하며, 전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레드라인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INC에서 새 문서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사우디아라비아(아랍 그룹 대표), 이란, 말레이시아는 명확한 범위와 정의의 필요성, 그리고 레드라인 존중을 강조했으며,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제11조에 따른 새로운 국가 그룹 창설에 반대 의견을 표명함 -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오늘 밤(8/13일)" 새로운 야심찬 문안을 요구했으며, 온두라스 및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함께 원주민 관련 문구 삭제 등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함 - 칠레는 초안에 중대한 공백과 결함이 있으며 플라스틱오염 위기에 대처할 적절한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음 - INC의장은 본회의 후 지역 그룹 및 회원국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초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며,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8월 14일 목요일에 추가 수정된 문안을 작성하여 배포할 것이라고 발언함 - 또한 INC의장은 만약 국가들이 수용가능할 경우, INC가 목요일에 수정된 문안을 법률 초안 작성 그룹에 전달할 것이며, 회원국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함 □ EU(스웨덴) 양자협의 - 제7조에 관한 우리나라 입장과 EU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전생애주기 플라스틱 관리는 EU의 red line이라는 점을 설명함 - 어구 플라스틱 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포함한 제7조(방출과 누출)와 관련하여 한국과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문안협상과정에서 협력을 희망한다는 점을 설명함 - 우리나라는 제7조를 포함한 플라스틱 문안협상 과정에서 제5.1차 INC 개최국으로서 문안협상 타결을 위해 EU등 국가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정부대표단 현지대책회의 - 2차 의장문안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 입장의 반영여부를 중심으로 대표단 회의가 진행 - 제2조(정의), 제4조(면제), 제6조(공급 및 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한 2차 의장문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협약의 적용범위는 의장문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다수 대표단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red line)"이라고 주장함 - 특히, EU, 개도국 등은 2차 의장문안이 UNEA 5/14 결의에 포함된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로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비판하였음 - 건강 및 화학물질 관련 규정은 독립규정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EU, 미국, HAC 등의 반발이 예상됨 - 토착 및 권리와 전통지식에 관한 언급이 전체적으로 삭제되었는데, 이는 군소도서국, 라틴 아메리카, SIDS 등 개도국의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 - 2차 의장문안은 당사국총회(COP)의 권한이 약화되었으며, 자원 및 재정메커니즘에도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음. 이는 개도국이 수용불가한 부분으로 예상 - 한편, 절차적으로 의장은 지역그룹에서 논의하고 2차 의장문안에 대한 그룹별 입장과 수정안을 제시해달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고 미국, 영국, 가나, 칠레, 멕시코 등은 절차적 정당성과 의사진행 방식에 반발함
업무⑩	8.14(목)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 회의 참석
수행계획	□ (8.14(목) 오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14(목) 9:00 ~ 13: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회의내용 : 전체회의에서 제5.2차 INC 회의 최종결과 검토, 의장 권고문 수정, legal drafting group 최종결과 보고, 향후 일정 등
	□ (8.14(목) 오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일 시 : 8.14(목) 15:00 ~ 18:00 - 참 석 자 : 박수진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 회의내용 : 전체회의에서 제5.2차 INC 회의 최종결과 보고, 의장 권고문 채택 등
수행결과	(8.14(목) 오전) 10:00-13:00 □ 절차적 협의방식 - 우루과이는 향후 절차적 진행방식에 대해 지역그룹 회의와 의장과 양자적 비공식 협의, 의장단 회의에서 결과를 공유할 것을 제안함 - 이집트는 새로운 문안은 비공식그룹 회의보다는 전체회의(plenary)를 통해 진행할 것을 요청 - EU는 수석대표회의(HODs)는 본회의와 중복되므로 비효율적이라면서 의장이 지역대표와 관심국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한 후, 새로운 문안을 제시할 것을 요치 - 반면, 쿠웨이트, 투발루는 남은 시간이 24시간에 불과하다면서 지역그룹 회의는 비효율적이라면서 의장 주도의 수석대표회의가 건설적이고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 - 브라질은 발언시간을 엄격히 제안하고 각국의 red line을 중심으로 합의도출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투발루, 브라질, 그레나다 등은 수석대표회의(HODs)를 통한 정치적 쟁점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함 □ 의장은 비역그룹회의와 비공식 양자협의를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겠다는 점을 설명 (8.14(목) 오후) 15:00-23:30 □ 정부대표단 현지대책 회의 - 컨택그룹 4개와 비공식 그룹 회의가 병렬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대표단은 업무분장에 따라 각각 의제대응, 단독방을 통해서 의견조정 및 정보공유 예정 - 컨택그룹1은 환경부와 산업부가 담당하고, 컨택그룹 2는 환경부와 해수부(해양보전과, KMI, KOEM)가 담당함 - 외교부는 컨택그룹 3과 4를 담당하되, 환경부와 전문가 자문이 지원 - 비공식 그룹
업무⑫	8.15(금) 오전 제네바 → 암스테르담 이동
수행계획	□ (8.15(금) 오전) 제네바 → 암스테르담 이동
수행결과	(8.15(금) 오전)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 전체회의(Plenary) - 05시30분부터 10시까지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국별발언을 통해 제5.2차 INC 결과에 대해 국가별 평가와 발언이 이루어짐 - 다수 대표단은 의장이 8/14일에 제안한 2차 문안(Second iteration)에 모호한 표현과 블래킷(bracket)이 지나치게 많아 합의를 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였음 - 특히, 단일사용 플라스틱(global measures on SUPs)에 대한 강력한 글로벌 조치가 부재한 부분과 플라스틱 제품 설계, 화학물질 성분 공개, 건강영향(특히 미세플라스틱) 대응 등 구체적인 의무가 부재한 2차 문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함 - 개도국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을 강조하면서 토착민, SIDS(도서국), LDC(최빈개도국), 내륙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으면서 문안을 거부함 - 자원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도국은 예측 가능하고 충분한 자원조달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인도네시아는 GEF를 임시기구로 두고, 이후 전용기금 + 민관협력(PPP) 혼합모델을 추진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하였음. 또한 개도국은 기술이전·역량강화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플라스틱 협약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우리나라는 의장의 2차 문안에 대해 실질적 협상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문안협상 회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각간 합의도출 위한 시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한국은 중재자(bridging role)로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제5.2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후속협상 대비 필요 - 당초 예상과 달리 유엔 플라스틱협약 문안협상 타결에 실패, 후속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일정은 제7차 유엔환경총회(UNEA) (2025.12.8.-12, 케냐 나이로비)에서 논의 -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책임있는 역할을 한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되, 제5.2차 INC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국내 플라스틱 제조 및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국가계획 수립, 기술개발, 개도국 역량강화, 자원마련을 위한 세부문안 제안 및 논리 개발 필요 -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문안협상 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노력 지속 필요
--	--

주요 회의 사진



제네바 유엔사무소 전경(1)



제네바 유엔사무소 전경(2)



제5.2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회의 전경(1)



제5.2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회의 전경(2)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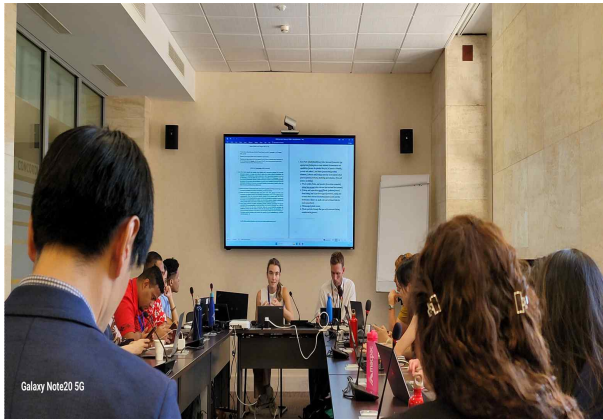


대한민국 수석대표 발언



아시아퍼시픽 지역그룹 회의 참석자 전체사진

주요 회의 사진



핵심쟁점 의제에 관한 informal meeting(1)



핵심쟁점 의제에 관한 informal meetin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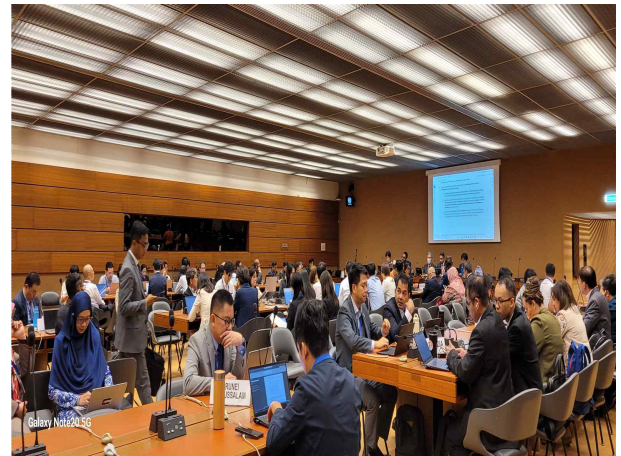
플라스틱 오염 종식 촉구 전시물

Conference Room	Location	Allocation
Assembly Hall	Building A, 3rd Floor	Plenary
III	Building A, 1st Floor	SIDS
V	Building A, 1st Floor	EU
VIII	Building A, 3rd Floor	EEG
IX	Building A, 3rd Floor	WEOG / JUSSCANNZ
XVI	Building A, 5th Floor	GRULAC
XVIII	Building E, 1st Floor	Contact Group
XIX	Building E, 3rd Floor	Contact Group
XXI	Building E, 1st Floor	Observers
XXIII	Building E, 1st Floor	AFRICA
XXIV	Building E, 1st Floor	LDG
XXVI	Building E, 1st Floor	APG
XXVII	Building E, 1st Floor	Media Event Space
Concordia 1	Building A, 2nd Floor	INC Bureau
Concordia 4	Building A, 2nd Floor	Arab Group (at specific time)
Please check App		Overflow Ro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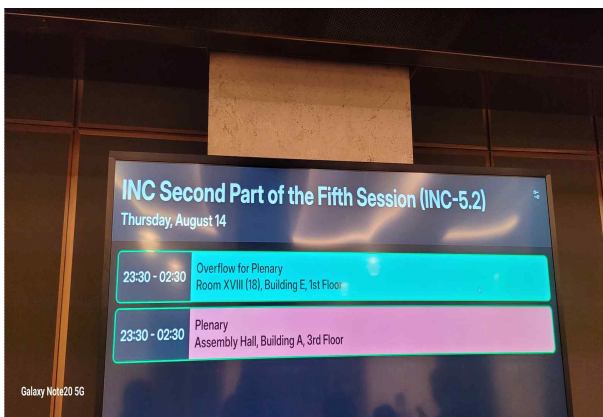
제5.2차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운영



아시아퍼시픽 지역그룹 회의(1)



아시아퍼시픽 지역그룹 회의(2)



8월 14일 회의일정



8월 15일 오전 폐회식 이후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기자회견